

남성의 아버지역할 수행 실태*

- 가족친화문화조성을 위한 아버지교육 프로그램 개발에의 제안 -

송 혜 림(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 박 정 윤(중앙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고 선 강(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권 혜 진(나사렛대학교 아동학과)
김 유 경(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 진 미 정(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I. 서론

최근 들어 가족친화문화조성에 대한 전사회적 관심에 따라 관련 법이 제정되고, 다양한 아젠다와 제도적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가족친화정책은 일과 가족생활의 조화를 용이하게 해주는 정책들로서, 예컨대 적절한 가족자원(부모역할을 위한 소득, 서비스, 시간)을 제공하여 아동발달을 지원하거나, 부모들로 하여금 일과 양육 중의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끔 기회를 용이하게 한다든지, 고용기회에서의 성 평등을 향상시키는 것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된다(OECD, 2002 - 홍승아 외, 2008에서 재인용). 또한 가족친화문화조성은 일-가정 양립과 연계되어 더욱 활성화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일-가정 양립 정책의 목표는 남녀 모두의 가족권과 노동권의 조화이며, 그 추진과제로서 남성의 노동시간의 일정부분을 가정으로 이전하여 가족생활 참여를 지원하는 것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기반 구축 등이다(노동부 홈페이지). 따라서 남성의 경우 가족권의 강화, 여성의 경우 노동권의 강화를 통해 남녀 모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직장 영역에서의 가족친화적 문화와 제도가 필요하다는 연계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와 같이 가족친화문화의 제도적 기반과 구체적 서비스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특히 ‘남성’에 대한 관심도 함께 향상되어 온 맥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일-가정의 균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이 필수적이며, 특히 남성이 아버지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인적·가족적·사회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긴급히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하는 여성’을 집중적인 타겟으로 한 정책적·제도적 지원은 결국 남성의 가족생활참여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즉, 빠른 속도로 증가되어 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라는 현상 뒤에는, 기혼여성의 생애노동주기가 여전히 M자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기혼취업여성의 일-가정 양립과 지속적인 생애노동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실현되지 못함을 의미하는 바,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중요한 하나가 가정에서의 평등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데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양성평등하고 가족친화적인 문화 조성은 남성 문제, 즉 남성이 가정으로부터 소외되고 직장노동에 대한 과중한 몰입으로 인하여 가족돌봄노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며, 이로 인한 아버지역할수

* 본 연구는 2010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가 위탁한 ‘남성 대상 가족친화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된 실태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음

행의 부족 혹은 취약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기혼남성을 대상으로 아버지역할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아버지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남성 자신의 긍정적인 정체감 정립, 아버지역할 수행 역량의 향상, 일하는 여성과 남성의 일-가정 양립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친 가족친화문화조성을 위한 효율적 대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선행연구고찰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바 아버지역할과 관련하여 부정연구의 경향을 보면, 서구의 경우 우선 자녀의 발달에 있어서의 아버지의 영향을 포착하기 위해 자녀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참여에 집중되어 왔고, 그것은 아버지의 존재여부로부터 시작된다(Adamsons & Buehler, 2007: 272-273). 최근 아버지 역할이 증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한 연구들은 이러한 변화가 여성의 사회참여에 따라 성별관계와 성역할이 변화되는데 수반된 것으로 보고 있다. 1900년부터 1989년까지 대중잡지에 나타난 부정 이미지에 관한 연구는 아버지의 역할이 1900년대 초 가정과 사회를 연결하는 역할에서 1980년대 말에 오면 아이들에 대한 매일의 돌봄 역할로 변화되어 왔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Akinson, 1993: 975-976). 이것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확산되면서 아버지도 단순한 생계부양자로부터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다.

우리 나라 부정연구의 경우, 아버지 역할에 대한 개념과 관련하여, 아버지 역할은 생계 책임자와 양육적 아버지로 나눈 연구(이숙현, 2001)로부터, 아버지 역할을 자녀의 발달적지지, 자녀돌보기, 자녀와 함께 하기, 학부모 역할 수행, 자원제공자로서 책임감 지각으로 나누는 연구도 있다(이영환, 2001). 또 다른 연구는 아버지 역할을 경제적 부양자, 대화상대자, 가정의 통솔자 및 합리적 판단자로 나누고 있다(한국여성개발원, 1995).

한편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관련 연구(홍길희·황정혜, 2006) 결과, 아버지 교육에 대한 요구도는 높게 나타났고, 내용으로는 좋은 부모의 철학, 신념, 자녀의 정서적, 사회적 관련 부분이 었다. 딸을 가진 아버지들의 교육요구가 더 높은데 이는 이성자녀의 양육에 어려움을 더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직장 위주의 삶보다는 가족에게서 심리적 만족을 찾는 남성들이 늘고 있다는 연구결과(안신호, 1997)와 함께, 아버지 역할에 대한 인식이 경제적 부양자에서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으며(이숙현, 1995; 한경혜, 1995), 사회생활과 가정생활 양립을 도모하려는 노력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김진희, 2004)는 결과도 본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가족친화문화조성을 위한 아버지교육프로그램 개발에의 대안 제시를 주제로 하여 아버지역할 실태를 조사하였는데, 조사도구는 도구화된 설문지이다. 설문지는 대상자의 인적사항 외에

아버지역할 수행 실태(아버지의 자녀돌봄 참여 시간, 활동, 자녀와의 관계)와 인식(평가, 장애요인, 만족도), 일-가정 갈등 그리고 아버지역할 수행 증진을 위한 요구도 등을 파악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조사기간은 2010년 2월-3월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서울/경기, 충청, 경상, 호남 등 전국에 걸쳐 조사되었다. 최종적으로 회수되어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총 973부였으며,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973)

변수	구분	빈도	백분율	변수	구분	빈도	백분율
연령	20-30대	370	38.7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11	11.6
	40대	533	55.8		200-300만원	235	24.6
	50대	53	5.5		300-400만원	233	24.4
	총계	956	100.0		400-500만원	199	20.9
학력	고졸이하	220	22.9		500만원 이상	176	18.4
	대졸	586	60.9		총계	954	100.0
	대학원	156	16.2	직종	전문/경영직	163	17.1
	총계	962	100.0		관리/사무직	403	42.2
결혼지위	유배우	920	94.3		서비스/판매직	209	21.9
	무배우	36	3.7		단순/노무직	57	6.0
	총계	956	100.0		기타	122	12.8
				총계	973	100.0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40대가 55.8%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수준은 대학졸업자가 60.9%, 가구소득은 200-300만원사 이가 24.6%, 300-400만원대가 24.4%로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였다. 직종으로는 관리/사무직이 42.2%로 거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조사대상자의 아버지역할 수행 실태를 보면, 먼저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 자녀와의 갈등 실태는 아래와 같다.

<표 2>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과 자녀와의 갈등 인식정도

항 목		평균	표준편차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 (하루 평균)	평일	1.83	1.37
	주말	6.08	5.37
자녀와의 갈등		3.09	2.15

아버지와 자녀가 하루 평균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의 정도를 살펴본 결과 평일은 1.83시간(표준편차 1.37)이었고, 주말은 6.08시간(표준편차 5.37)으로 나타, 주중보다는 주말에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은데, 표준편차를 감안한다면 주말은 최대 11시간 이상을 함께 하고 있어 아버지들이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자녀와의 갈등인식 정도를 살펴보면 10점 리커트 척도 중

3.09점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즉, 아버지들은 자신의 자녀들과 갈등을 느끼지 않고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3> 자녀연령별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

문항	첫째자녀 연령			F
	영유아	초등생	중고생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평일)	2.25 a	1.80 b	1.56 b	18.975***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주말)	8.22 a	6.22 b	4.71 c	31.461***
자녀와의 갈등	2.08 a	2.99 b	3.79 c	51.976***

*p<0.05, **p<0.01, ***p<0.001

자녀연령별 아버지와 함께 하는 시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평일과 주말 모두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아버지보다 함께하는 시간이 길었다. 특히 주말의 경우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는 8.22시간을, 중고등생 자녀를 둔 아버지는 4.71시간을 함께 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자녀연령별 아버지와 자녀간 갈등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자녀연령이 높은 집단이 어린집단보다 아버지와의 갈등이 높게 나타났다.

<표 4> 아버지 역할 평가

항 목	평균	표준편차	
계	26.71	7.68	
아버지 역할 평가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맺음	3.89	.96
	의논상대가 됨	3.79	1.49
	자녀 친구이름 세 명 이상 됨	3.66	1.77
	좋아하는 연예인/TV프로를 알고 있음	3.87	1.57
	사교육 숫자와 내용을 알고 있음	4.26	1.40
	자녀 문제나 고민을 알고 있음	3.65	1.61

아버지역할 평가에 대해서는 총점 30점 만점에 26.71점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항목별 평균을 비교하면, 아버지들은 ‘자녀의 사교육 숫자와 내용을 알고 있음’의 문항에 있어 평균이 4.26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녀와 친밀한 맺고 있다’, ‘좋아하는 연예인/TV 프로를 알고 있다.’의 순으로 나왔다. 반면 ‘자녀의 의논상대가 되거나 자녀의 문제가 고민을 알고 있다’의 항목에서는 다른 항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점을 나타내서 아버지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표면적으로는 원만하지만 깊은 상호작용이 일어나지는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5> 자녀연령별 아버지 역할평가 문항별 차이

문항	첫째자녀 연령			F
	영유아	초등생	중고생	
아버지역할 평가	31.80 a	25.63 b	24.27 b	90.092***

*p<0.05, **p<0.01, ***p<0.001

자녀연령별 아버지 역할 평가의 집단비교를 한 결과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평균이 다른 연령대의 자녀를 둔 아버지보다 평균이 높았다. 즉,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가 다른 연령대의 아버지보다 아버지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아버지의 일-가정 갈등

항 목	평균	표준편차
계	24.88	6.53
직장-가정 간 갈등		
직장 때문에 가족행사에 참석 못함	2.88	1.05
일 때문에 가족여가시간이 부족함	3.14	1.07
일 때문에 가족에 무관심하단 불평 들음	2.78	1.05
동료와 대화가 가족과 대화보다 편함	2.44	.97
가정보다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함	2.40	.97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모름	2.38	.91
집에 있는 것보다 밖에 있는 것이 편함	2.23	.93
집에서 뒷전으로 밀리는 느낌임	2.21	.89
집에서 내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음	2.10	.86
집에 돌아올때 식구들이 반갑게 맞아줌	2.12	1.05

아버지가 인식하는 일-가정 갈등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총 10개 문항으로 질문한 결과 5점 리커트 척도의 중간점수인 3점보다 높은 평균을 차지한 문항은 1개 문항에 불과하여 일-가정 갈등 인식정도는 그리 높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 때문에 가족 여가시간이 부족함’ 문항의 평균이 가장 높았다. 즉, 아버지들은 직장일로 인해서 가족의 여가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직장 때문에 가족행사에 참석하지 못함(2.88)’, ‘일 때문에 가족에 무관심하단 불평 들음(2.78)’, 문항이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에 ‘집에서 내 의견이 반영되지 않음(2.10)’, ‘집에 들어올 때 식구들이 반갑게 맞아줌(2.12)’의 문항은 가장 낮은 평균값을 차지함으로써 가정 내에서 남성이 자신의 고유한 역할과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아버지 역할 장애 및 역할만족도, 역할효능감

항 목	평균	표준편차
총집	24.08	6.42
아버지역할 장애		
경제적 형편	2.92	1.02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3.08	.97
장시간 근로	3.18	1.06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	2.59	.91
자녀들의 시간 부족	2.84	1.00
배우자의 비협조	2.39	1.03
부부 불화	2.35	1.14
역할모델이 없어서	2.41	.95
필요를 못 느껴서	2.25	.95
아버지역할 만족도	5.65	1.87
계	13.42	2.65
아버지역할 효능감		
아버지역할을 잘 하고 있음	3.23	.79
아버지 역할이 즐거움	3.55	.81
아버지 역할에 자부심을 느낌	3.56	.81
아버지역할을 잘하는 방법을 알고 있음	3.13	.86

아버지가 인식하는 역할 장애를 파악하기 위해서 9개 문항을 살펴본 결과 ‘장시간 근로’가 3.18점으로 가장 높은 평균점을 나타냈으며, 다음의 장애요소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3.08)’, ‘경제적 형편(2.92)’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아버지 역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2.25)’, ‘부부불화(2.35)’, ‘배우자의 비협조(2.39)’의 문항 평균점은 낮았다. 결국 아버지 자신의 역할수행이 있어서 주변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 뿐 아니라 직장에서의 가족친화적 분위기나 여건 조성이 시급함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아버지 역할 만족도는 10점 리커트 척도 중에서 5.65점으로 나타났다. 이어 덧붙여 아버지 역할효능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총 4문항이 5점 리커트 척도를 조사하였는데 전체 문항의 평균이 13.42점으로 나타나 대체로 아버지 역할수행에 자신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문항별 평균을 비교하면, ‘아버지 역할에 자부심을 느낌’이 3.56점, ‘아버지 역할이 즐겁다’가 3.55점으로 비슷하였다. 조사대상자 아버지들은 자신이 아버지임이 자랑스럽고 즐거운 역할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그런 한편에 ‘아버지 역할을 잘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라든가, ‘아버지 역할을 잘 하고 있다’라는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과거처럼 아버지가 규범적이 의무만으로 점철되는 역할에 제한되기보다는 스스로 즐기고자 하고 아버지가 되고자 하는 생각들이 많음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실제적인 아버지 역할수행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표 8> 자녀연령별 아버지역할 만족도와 효능감의 차이

문항	첫째자녀 연령			F
	영유아	초등생	중고생	
아버지역할 만족도	5.88	5.58	5.54	2.658
아버지역할 효능감	13.88	13.46	13.13	6.008**
	a	a b	b	

* p<0.05 **p<0.01 ***p<0.001

자녀연령별 아버지 역할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아버지 역할 효능감에서는 차이를 보여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초등학생이나 중고등생 자녀를 둔 아버지보다 효능감이 높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들은 자녀의 연령에 관계없이 영유아기 자녀양육과 동일한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고, 자녀가 성장함에 따른 자의식이나 독립성을 인정하고 그에 적절한 역할전환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에서 역할수행의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예측된다. 특히, 중고등학생기의 아버지들은 자녀와의 세대차, 교육현실의 문제로 인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아버지들은 스스로 좋은 부모가 되는 것에 한계를 가진 결과로 해석해볼 수 있다.

<표 9> 자녀연령과 원하는 아버지상의 관련성

영역	전체	자녀연령		
		영유아	초등생	중고생
친구같이 지낼 수 있는 아버지	484 53.0%	136 54.4%	175 55.6%	173 49.7%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는 아버지	122 13.4%	35 14.0%	45 14.3%	42 12.1%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아버지	116 12.7%	27 10.8%	33 10.5%	56 16.1%
좋은 남편으로 인정받는 아버지	104 11.4%	34 13.6%	28 8.9%	42 12.1%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아버지	62 6.8%	13 5.2%	28 8.9%	21 6.0%
가장으로서 위엄을 갖춘 아버지	25 2.7%	5 2.0%	6 1.9%	14 4.0%

자녀연령별 원하는 아버지 상을 비교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53.0%가 자녀와 ‘친구같이 지낼 수 있는 아버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는 아버지(13.4%)’, ‘경제적으로 능력있는 아버지(12.7%)’, ‘좋은 남편으로 인정받는 아버지(11.4%)’,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아버지(6.8%)’, ‘가장으로서 위엄을 갖춘 아버지(2.7%)’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대의 아버지들은 자신이 과거의 전통가족 내에서 아버지 역할을 수행해왔던 규범적이고 훈육적인 위엄이 있는 아버지보다는 부드럽고 친밀감을 나눌 수 있는 정서적인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결론 및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상의 변화 즉, 남성들 스스로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친구 같은 아버지로서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가를 교육프로그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녀연령에 따라 아버지역할 수행의 결과 차이가 다양하게 나타났다는 결과에 비추어, 자녀의 발달연령별로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예컨대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등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맞춤형의 교육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조사 결과 아버지 역할효능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버지 역할을 잘하는 방법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내어 좋은 아버지가 되는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은 아버지역할의 실천과 실행이라는 차원에서 다양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며, 활동과 경험담 나누기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도 세부적인 내용들이 교환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아버지역할 수행의 장애요인으로 장시간 근로,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 개인적으로 혹은 아버지교육 프로그램 자체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서, 직장문화의 변화 및 가족친화적인 제도기반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직장으로 찾아가는 아버지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 직장의 가족친화문화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므로,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은 여전히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개발 뿐 아니라 그 운영체계에 있어서 찾아가는 서비스로서의 특성을 강화시키고, 지역사회에서 직장들과 보다 활발히 연계되어 직장의 가족친화문화가 활성화되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자녀들은 그 연령별로 어떤 아버지역할을 요구하고 있는지, 아버지와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함으로써 아버지와 자녀 간 개방적인 소통과 관계맺음을 가능케 하고, 이로써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한층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진희(2004). 아버지로서의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교육이론과 실천*, 14(1), 89-114.
- 안신호(1997). 직장인이 추구하는 삶의 의미. 김명언, 박영석 (편), *한국 기업문화의 이해*(pp.388-439)
- 이숙현(1995). 장년기 아버지의 일과 가족생활. 아버지의 일과 가족생활 : '95 가정복지 세미나 자료집. 3-34
- 이숙현(2001). “전문직 남성의 아버지 역할: 교수·의사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3(1): 31-50.
- 이영환(2001). “생산적인 아버지 노릇 및 양육방식에 관한 비교문화적 연구: 한국과 미국아버지를 대상으로”. *아동학회지*23(1): 139-151.
- 한경혜(1995). 중년기 아버지의 일과 가족생활. 아버지의 일과 가족생활 : '95 가정복지 세미나 자료집. 35-80
- 한국여성개발원(1995). *부성계발에 관한 연구*.
- 홍길희 · 황정혜(2006). 자녀양육스트레스 및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아동학회지*, 27(3),301-317.
- 홍승아 외(2008) *일가족양립정책의 국제비교연구 및 한국의 정책과제*. 한국 여성정책연구원
- Adamsons, Kari and Cheryl Buehler. 2007. “Mothering versus Fathering versus Parenting: Measurement equivalence in parenting measures”.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July-September: 271-303.
- Akinson, Maxine P. 1993. “Fathering in the 20th Centur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4): 975-986.

남성의 아버지역할 수행 실태

- 가족친화문화조성을 위한 아버지교육 프로그램 개발에의 제안 -

유 아 량(인천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교육팀장)

최근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남성의 일과 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적인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남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가족교육사업영역에서 공통필수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남성 참여교육프로그램이 가지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매뉴얼이 개발되고 이를 활용한 교육사업의 진행이 권장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남성의 아버지역할 수행 실태를 근거로 하여 그동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진행되어 온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캠페인 차원의 교육에서 보다 구체적인 아버지역할, 자녀의 발달연령별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등 아버지역할의 실천 및 실행이라는 차원에서 다양한 지식과 기술, 정보를 제공,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여성과 남성 모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가족친화적인 문화조성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출발하여 가족친화문화조성에 필수적인 남성교육사업영역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 이에 토론자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대안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 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담당 실무자로서 그 동안 현장에서의 남성참여교육 프로그램 운영경험을 토대로 몇 가지 발전적 차원의 토론을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본 센터의 아버지교육 진행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면,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아버지학교-나는 행복한 아버지입니다.'를 실시하고 있다. 20대 미만의 자녀를 둔 아버지 20명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의 남성 및 아버지에 대한 고정관념을 극복하여 정체성을 찾고, 아버지로서 역할 수행의 의미와 방법을 제시하여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가정생활참여에 흥미를 유발시킴으로써 남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해 왔다. 또 교육효과의 단기성을 방지하고자 총 1박2일의 교육과 함께 후속교육까지 총 5회기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 회기는 주제별로 나눠 강의, 조별 나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주요 내용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 보급된 매뉴얼과 실무자 및 강사진의 다양한 내용을 토대로 하는데, 1회기는 한국사회의 남성생활세계에 대한 이해, 2회기는 부모-자녀 성격유형차이이해, 3회기는 자녀의 잠재력을 깨우기 위한 부모코칭, 4회기는 자녀의 발달과정에 따른 효과적인 아버지역할, 5회기는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의사소통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¹⁾. 이와 같은 교육의 기본 구성아래 다양한 형태의 변형을 시도하였는데 예를 들면, 건강한 가정생활은 행복한 부부관계가 밑바탕이 되어야

1) 1박2일 교육프로그램은 1~3회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후속교육은 4~5회기로 구성되어 있다.

하고, 일-가정양립을 위한 부부간 일치된 합의,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생활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므로 교육내용 중 일부시간에 부부가 함께 참석하거나 부부가 따로 강의에 참석하도록 구성 해 왔다. 이러한 교육을 진행한 결과 평균 20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으며, 수료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아버지학교 봉사단을 운영하여 교육의 효과를 확장시켜 다양한 아버지들의 참여를 유발시키고 있다.

이처럼 진행된 교육에 대한 평가로 아버지의 역할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강의와 함께 조별 나눔 및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아버지들과의 공감대 형성 및 아버지로서 삶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며, 스스로 가정생활참여의지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²⁾ 또한 1박2일의 교육뿐만 아니라 후속교육을 진행함으로써 교육의 단기성을 방지하고,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개발된 매뉴얼의 한계를 보완하여 구체적인 아버지역할에 대한 주제교육과 다양한 강의참고자료를 제시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하여 실제 가정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더 나아가 아버지학교 봉사단을 운영함으로써 교육의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가족친화문화조성을 위한 인적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반면, 프로그램 진행상 한계점으로는 첫 번째, 대상자모집에서 찾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남성대부분은 표면적으로 자녀들과의 갈등인식정도도 낮고,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부모교육, 아버지교육 등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낮다. 본 센터의 대상자도 대부분 이처럼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아내의 권유에 의한 참여가 높고, 아버지교육 참여율도 타교육에 비해 낮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상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어 20세 미만의 자녀를 둔 아버지로 집단층을 넓게 모집하여 개별 대상자의 가족생활주기, 가족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두 번째, 현재 아버지교육을 실시한 후 진행상황에 대한 만족도 조사만 실시하여 본 교육프로그램이 실제 가족생활참여 향상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사전, 사후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버지교육의 효과성 및 가족친화적인 인식의 변화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세 번째, 아버지교육대상자들의 강의 주제별 평가를 실시한 결과, 돌봄노동의 참여를 유도하는 주제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아버지역할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요구가 높고 개별참가자들의 사례별 교육에 대한 기대가 컸다. 하지만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개발된 매뉴얼로 이를 만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고, 특히 2시간의 강의만으로는 충분한 교육의 효과를 얻을 수 없었다. 네 번째, 매년 주기적으로 시행되는 교육인 만큼 표준화 된 강의 수준(효과성)의 보장 및 강사섭외에서 한계점을 찾을 수 있다. 이는 센터자체에 아버지교육을 담당하는 인력이 부족하여 매 강의마다 주제별로 강사를 섭외해야하는 입장에서 일정수준이상의 표준화된 강의효과성을 담보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와 토론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남성참여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한다. 먼저, 다양한 아버지들의 참여를 활발히 하기 위해서 가정생활주기나 대상자의 요구, 가족특성 등을 차별화한 맞춤형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사전에 심층면접이나 조사를 통해 참가자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단계가 고려되어야 하며, 실무자는 개별사례에 따라 상담, 문화사업 등으로 연계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진행상황에 대한 평가 뿐 아니라 향후 남성참여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남성의 가족생활참여 정도의 사전, 사후 검사의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셋째, 본 센터에서 교육효과성의 지속성을 위해 실시한

2) 교육만족도(5점리커트척도) - 2009년 상반기 4.38점, 2009년 하반기 4.4점, 2010년 상반기 4.45점

정기교육 및 후속교육 병행과 아버지학교 봉사단 운영방법처럼 교육참가생들의 품앗이, 봉사단, 동아리 등의 모임활성화 방안과 상담, 문화사업 등 통합프로그램후속교육을 포함하는 교육 개발을 제안한다. 셋째, 가족친화문화의 제도적 기반과 구체적 서비스가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성들은 직장생활로 인한 가족생활참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으로 찾아가는 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이 가능한 매뉴얼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자녀의 발달단계, 가족형태 등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 내용을 마련하여 더욱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사회의 남성으로서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가족친화적인 인식을 위한 강의는 공통으로 진행하고, 본 논문에서의 자녀가 어릴수록 아버지역할의 시간, 긍정적 평가, 효능감이 높고 자녀와의 갈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바탕으로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교육을 제안하며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다가오는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아버지역할의 올바른 기대감 및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건강가정사업의 특성 중 예방성이라는 차원에서도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매뉴얼의 개발 뿐 아니라 교육내용의 질적인 전달을 위해서 남성교육 전문강사 양성을 위한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남성교육의 활성화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족친화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남성대상교육을 필수로 지정하고 있는 바, 아버지교육프로그램의 그 중요성 및 필요성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토론함으로써 개인적으로 아버지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한번 인지하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기존의 다양한 매뉴얼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유관기관과 비교하여도 차별성 있는 브랜드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토론을 마치하고자 한다.